

Print

Mar 11, 2018 07:35 PM KST

유니세프 송상현 회장, 동계 패럴림픽 성화 봉송 참여

By 이대웅



▲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성화를 봉송하고 있다. ©유니세프 제공

지난 3월 8일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이 강원도 강릉 지역 성화봉송주자로 참여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의 권리를 증진하고 더 나은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스포츠를 어린이 삶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3년부터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온 유니세프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의 스포츠 축제를 어린이를 위한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송상현 회장은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평화와 문화, 환경, 경제,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지구촌 축제가 되리라 믿습니다"며 "유니세프도 올림픽의 이상과 그 뜻을 같이 하여,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하나된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화봉송은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조직위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성화봉송 주자 추천을 요청하고 송상현 회장이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조직위는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서 꿈과 열정, 잠재력을 빛내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사람들과 열어갈 사람들을 성화봉송 주자로 선정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패럴림픽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유니세프 후원자들과 나눈다는 취지로, 2018 패럴림픽대회 컬링과 아이스하키 경기에 후원자 120명을 초청한다.